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성령강림절 후 제15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성실한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움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권태와 무료함 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우리의 나태함과 소홀함이 거센 물살이 되어 누군가의 행복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맡겨진 소임을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히 감당하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은 온 세계의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하는 교회연합주일입니다. 교회들이 각자의 권익을 따르며 그릇된 길을 가던 모습을 버리고 머리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건물을 높이고 성도의 수를 불리는 일에만 연연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와 사랑의 길을 따르는 일에 매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마5:3,4	인도자
----------------	--------------	-----

♠ 교 독 문	35. 시편84	다함께
---------------	----------------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	-----------------	-----

대표기도	I. 한성건 선생 II. 방문성 장로
------------	----------------------

응 답 송	찬양대
-------------	-----

찬 양	208(통246). 내 주의 나라와	다함께
-----------	---------------------------	-----

성경봉독	I. 막4:3-9	최명하 학생
------------	-----------------	--------

	II. 고후6:1-10	진정숙 집사
--	--------------------	--------

찬 양	찬양대
-----------	-----

말 씬	I. 씨를 뿌리는 마음	손성현전도사
-----------	--------------------	--------

	II. 하나님의 일꾼답게	김기석 목사
--	---------------------	--------

거둠기도	다함께
------------	-----

- 찬 송 213(통348). 나의 생명 드리니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망각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가슴 벅찬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좁고 굴곡진 길이지만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파리를 생각한다’	이사야서 공부 : 김재흥 목사
정수복 교우	기도: 윤성종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한성건 선생 김인걸 장로	최명하 학생 정영선 권사

9월	영접위원	김인걸 박두석 김대근 문영혜 이건화 박경원
	헌금위원	한완식 박혜경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걷기의 의미

과거에 양반 나라들은 가마를 타고 행차했고 서양 귀족들은 말을 타고 이동했다. 탈것은 지위의 상징이었다. 그에 반해 걷기는 평민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였다. 오늘날 자동차는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이동의 수단이 되었다.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모든 영역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성이 강조되는 속도지상주의 사회에서 걷기는 느낌과 부적응을 뜻한다. (1960년대에 유행했던 한 대중가요에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이라는 가사가 나오고, 채플린의 영화 속 주인공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도시를 떠도는 방랑자였다. 오늘날 대중문화 속에 떠돌이가 사라지고 있음은 속도지상주의가 그만큼 강화되었음을 뜻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사회에서 할 일 없이 이곳저곳을 어슬렁거리며 걸어 다니는 사람은 내태하거나 위험한 인물로 지목받는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걷기의 긍정적 가치가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면 걷기의 좋은 점은 어디에 있는가? 우선 건강증진 담론이 있다. 걷다 보면 몸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고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웰빙담론이다. 그래서 두 팔을 내저으며 힘차게 걷는 ‘파워 워킹’이 권장되고 있다. 환경보호 담론도 걷기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음으로써 에너지가 절약되고 대기오염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건강증진 담론과 환경보호 담론은 서로 결합되기도 한다. 걷기에는 건강증진과 환경보호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실용적인 목적에 앞서 걷기는 기분 전환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세상과 인생을 아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친구와 함께 강변을 걷다보면 그대로 인생길이 걸을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홀로 걸으면서 마음을 달래기도 한다. 걷기에는 마음을 다스려주는 심리적 치유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걷기는 몸의 움직임을 정신의 운동으로 전화시켜 세상을 조금 다르게 느끼게 해준다.

걷기는 치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도의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로부터 구도자들은 사막과 숲 속을 걸으며 인생의 참된 의미와 우주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냈다. 좁은 나를 버리고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길을 떠났다. 길은 내면의 소리를 경청하는 공간이었고 그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 구도자들은 걷고 또 걸었다. 소로는 월든 숲을 걸었고 샤를 드 푸코는 사하라 사막을 걸었다. 걷기는 비우기다. 쓰레기 같은 낡아나는 감정으로 꽉 찬 마음의 휴지통을 비우는 일이다. 걷기는 마음을 정화시킨다. 걷다 보면 분노나 질투심 같은 마음의 오염 물질이 점차 빠져나간다. 더 걷다 보면 내 마음은 나와 아무 관련 없이 그냥 거기에 있었던 길과 분수대, 하늘과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나’로 꽉 찼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자신이 세상의 극히 작은 한 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겸손해진다. 더욱이 혹독한 바람 앞에서 허기와 고독을 이기며 걷는 겨울 나그네는 스스로를 한없이 낮출 수밖에 없다. 인생이 걷기라면 우리 모두는 겨울 나그네다. 걷기는 내면으로의 여행이고 자기와의 대면이다. 걷기는 걷는 사람에게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우물이다. 걷다 보면 자기 밖에 전개되는 풍경과 눈앞에 나타나는 사물들이 자기 안의 자기에게 말을 건네온다. 그래서 평소애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게 된다. 걷기는 자기를 비우고 버리면서 다른 사물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다. 시인은 그 소리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는 존재다. 그 소리와의 대화가 시가 된다. 풍경은 거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걸으면서 풍경을 만든다. 그래서 걷는 일은 머릿속에 풍경화를 그리는 일이다. 몸으로 마음으로 호흡으로 시신경으로 머릿속에 풍경화를 그리다 보면 우리는 그만 어느새 풍경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풍경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풍경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다 내가 풍경 속으로 사라지고 나면 오로지 풍경만이 남는다. 우리는 걸으면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걸으면서 세상일에서 받은 상처와 실망을 다독거린다. 마음속을 닦아내고 정신을 정화시키기 위해 걸어야 한다. 몸을 움직여 걷다 보면 온몸에 에너지가 퍼지고 순환이 촉진되며 외부와의 교감이 일어난다. 쏟아지는 빗속을 걸으며, 산들바람과 함께 걸으며,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걸으며, 안개 속을 걸으며 우리는 우리를 만나고 자연을 만나고 세상을 만난다.

바람에도 길은 있다

강하게 때론 약하게
함부로 부는 바람인줄 알아도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바람은 용케 찾아간다
바람길은 사통팔달이다

나는 비로소 나의 길을 가는데
바람은 바람길을 간다
길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

- 천상병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박시내 윤정덕 구성실 한상익 정영선 강인식 김정숙 김준우 우순덕
 김순복 전영웅 김용길 최영혜 김정길 최숙화 김정섭 김중수 이순정
 박애순 박창운 허정윤 백묘현 윤미경 윤수진 이한림 김명희 조관행
 홍선희 정한구 왕영순 조문규 진정숙 강미선 전혜리 옥귀희 김재홍
 최희영 권미숙 서수진 김성한 조영순 무명4

월정헌금:

권미정 김미순 김중철 고영애 박석희 조항미 박준규 서지영 송의섭
 이재문 이봉배 이정은 정두리 전영자 조순덕 이광섭 김수연 문희창
 이수정

감사헌금:

박소진 김윤숙 정희선 노미향 박병구 김정애 박창운 허정윤 김명순
 왕수명 이정은 김순복 전혜리 무명7

생일감사헌금: 이승연

녹색꿈 헌금:

정성욱 김자경 장원호 박성희 고숙이 김준우 한완식 임정자 김용길
 최영혜 최문희 무명1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에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장혜숙	송임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서정순	노순옥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정복순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신영신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박옥순	박애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이인섭	송의섭
시온	박효선	허정윤	김정애	박효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이봉옥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김필순	이형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박옥식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심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임창선	박혜경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교회연합주일** : 오늘은 전 세계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교회연합주일입니다.
2. **오후집회** : 정수복 교우의 ‘도시 걷기의 인문학’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3. **교우새책** : 정수복 교우의 책, 『도시 걷기의 인문학 - 파리를 생각한다』가 출판되었습니다.
4. **자전거타기** : 생명의 강 품기와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위한 자전거 타기 캠페인이 서울연회 주관으로 14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중랑천변 제5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5. **가방만들기** : 다음 주 오후 동호회 때 환경부가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폐현수막으로 가방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환경부로 신청해주세요.
6. **주차** : 가급적이면 교회 마당에 차를 세우는 일을 자제해주시시오. (장애인차량은 예외)
7. **신앙실천** : 16일(수)은 오존층 보호의 날입니다. 이 날만큼은 가급적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갈릴리 속 (다음 주 : 베다니 속)

* 설거지 봉사 : 박병구 윤종권 박권동 (다음 주 : 곽상준 최경미)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